

위기의 시민운동, 茶山의 고장 강진서 길을 묻다

## “시민 없는 시민단체, 우리는 늘 정당한가”

‘형식적이고 성과없는 연대활동을 그만두고 서민을 대변하자’, ‘회원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늘 정당하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자.’

9일 오전 강진군 다산수련원에서 참여연대 등 전국 200여명의 시민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9 전국시민운동가 대회’ 토론회에서는 시민운동가들의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자리는 정체성을 잃은 시민운동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현 상황을 재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 참가자들은 ▲성과 없는 겉치기 연대 ▲회원 없는 시민단체 ▲시민운동 활동가 격감 ▲중산층만 대변하는 시민운동 ▲타성에 젖은 사고 등 시민운동의 한계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서로 책임지는 연대가 필요할 뿐 연대를 위한 연대나 성과없는 연대의 반복은 문제”라며

“서민층 한나라 지지는 잘못된 시민운동 탓”

“형식적 연대 그만” 200여명 자성 목소리

“당위성만 늘어놓거나 우리는 늘 정당하다는 교만한 자세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은 “시민단체가 하는 말을 의심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현시점을 진단한 뒤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여성민우회 백희정 사무국장을 비롯한 8명의 토론자는 ‘시민운동,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들 것인가’라는 주제토론에서 서민들을 위한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시민운동의 기본 사명을 민중들에게 다친 근본 문제를 돕

는 것으로 본다면, 그동안 시민운동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중산층 만 볼 게 아니라 고층 불안과 실업난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을 위한 운동은 이념과 대상이 일치해 지지층을 넓게 조직할 수 있는 운동분야”라고 주장했다.

오 사무처장은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지층은 엘리트 계층이고, 가장 보수적인 한나라당의 지지층은 서민층”이라며 “이는 정상적이지 못한 정당활동의 영향도 있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시민운동의 탓도 크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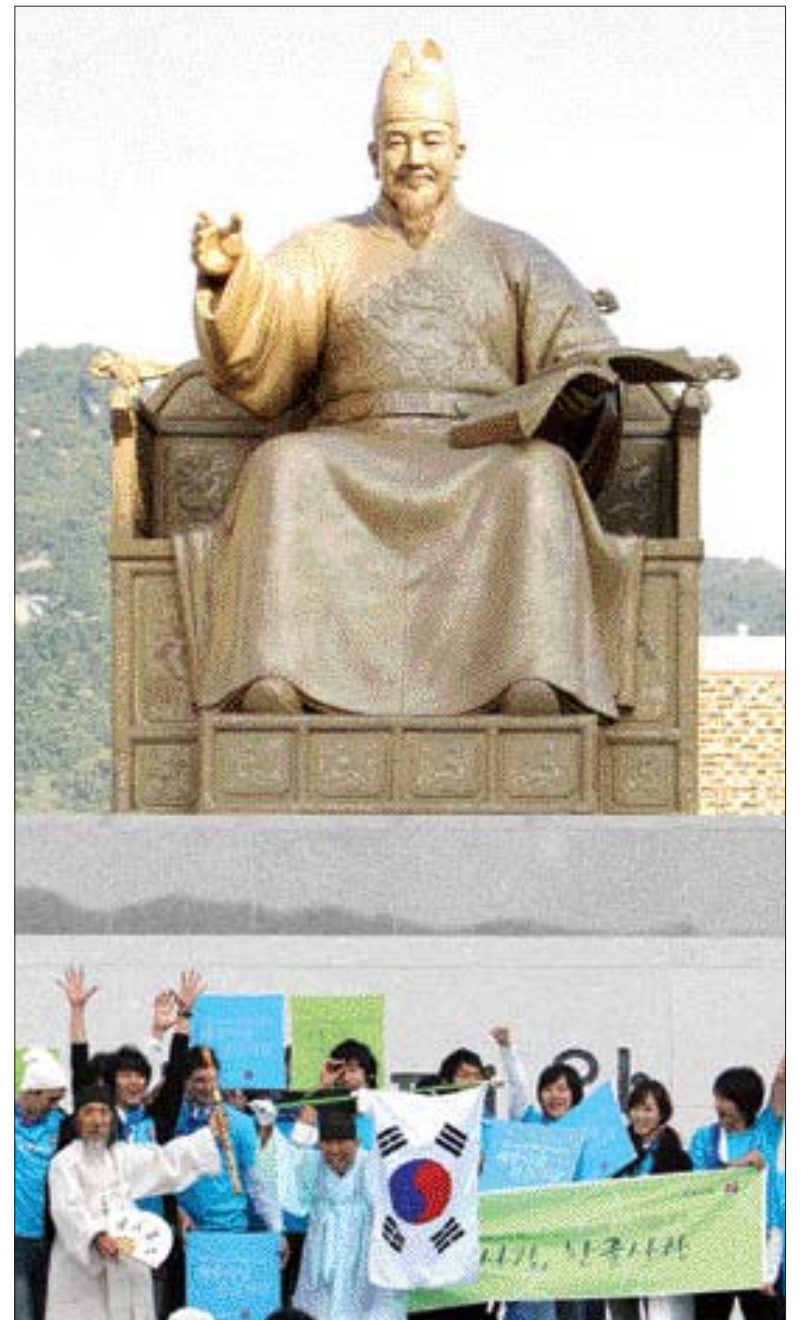
이날 토론회에선 시민운동가들의 급감과 역량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여성민우회 백희정 사무국장은 “최근에는 활동가 모집도 쉽지 않을 뿐더러 1년도 안돼 떠나기도 해 ‘사람’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며 “일부 활동가는 시민운동을 하러 온 것인지, ‘경력’을 쌓으러 온 것인지 의심될 때도 있지만 그들을 설득할 만한 ‘비전’이나 지향점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시민운동의 현실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한국여성민우회 권미혁 대표는 “시민운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이 공감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한 이유는 ‘방향성 부재’, 위기의식과 혁신에 대한 공감 부족”이라며 “타성에 젖은 생각이나 조급증, 욕심을 버리고 구체적인 목표 아래 시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종로 세종대왕像 제막**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막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세종대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날 시민에 공개된 세종대왕 동상은 높이 6.2m, 폭 4.3m에게 20t 규모로, 이순신 장군 동상 뒤쪽으로 약 210m 떨어진 세종문화회관 맞은편의 높이 4.2m 기단 위에 세워졌다. /연합뉴스

## “인류에게 미래의 희망 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 인류 협력과 국제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크게 노력한 공로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오바마만큼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인물도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면>

위원회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다자 외교와 핵 군축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위원회는 “오바마는 대통령으로서 국제 정치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유엔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자 외교가 중심 위치를 되찾았으며 심지어 가장 힘겨운 국제분쟁에서도 대화와 협상이(분쟁해결)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중동평화회담 재개와 군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 돼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노벨위원회가 그의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격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CNN 인터넷 뉴스는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르티 아티사리 핀란드 대통령의 말을 인용, “노벨위원회가 오바마의 세계 평화에 대한 활동을 격려하려고 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 크로네(약 16억8천만원)가 상금으로 주어지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올 노벨평화상  
오바마 美 대통령

## 이르면 26일부터 신종플루 백신 접종

이르면 이달 26일부터 국내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국가검정계획’에 따르면 식약청은 다음 주 초 보고되는 국산 신종플루 백신 1차 접종 결과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면 20일 중앙약사심의

위원회(중앙약심)를 거쳐 시판을 허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1차 접종 결과 분석과 국검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6일께 접종을 시작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급물량은 43만6천도스이며 8세 이하는 2회, 9세 이상은 1회를 접종하게 된다. /연합뉴스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초중고 일제고사 몸살 ▶ 3면 ‘뜨거운 감자’ M&A ▶ 4면 이미지 메이킹 ▶ 5면 Books ▶ 8·9면 독자와 함께 ▶ 13면 프로야구 PO 3차전 전망 ▶ 15면

50th

사랑을 만들어가는 50년입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에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참여한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귀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 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피로, 일산, 수크기, 병후·부후, 체력 저하 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명화, 야맹증
- 햇빛 피부를 등에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년기 시 다음 중심의 완화: 허파, 뇌경동, 수족저변, 수족냉증

**아연의 보급**

광고심의필 : 1005-0430